중민재단 2013학술세미나

보 · 도 · 자 · 료

중민사회이론 연구재단 학술세미나
주제 : '중민이론의 재조명
-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
일시 : 2013년 6월3일(월) 14:00~18:3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강당

한상진, "486정치인은 새 시대 열 준비 안 돼, 대결의 논리, 수의 계산, 동원의 효과, 함성의 크기에 집착"
"경고 못한 것이 중민이론의 한계로 깊이 성찰"

천정배, "안철수 현상의 궁극적 수혜자는 안철수 아닌 민주당이 될 여지도 있어"

표학길, "최장집의 '노동 중심 신당' 발언은 안철수 현상을 편향된 진보로 몰아넣어"

한국 사회와 정치권에서 오랜 동안 중심 이념으로 작동해 온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해부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이 학술세미나는 기성 정당인 민주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형성돼 가는 안철수 현상의 성격에 대해서도 사회과학적 분석을 가한다.

이 학술세미나에서는 또 중산층과 민중 개념을 결합시킨 '중민'의 시대사적 역할과 한계, 80년대 세대와 486정치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바탕한 분석

평가, 새로이 등장한 '복합적 유권자층'의 성격, 복잡다단화 해가는 한국정치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복잡성 과학이론(complexity science)의 응용 등이 심층적으로 토의된다.

중민사회이론 연구재단(이사장 ·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은 3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중민 이론의 재조명 : 안철수 현상과 민주당의 미래'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학술세미나에서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발제 '중민 이론의 재조명 : 중도개혁 노선의 재구성과 민생정치의 과제'를 비롯,
△'80년대 세대의 현주소와 민주당의 과제' (심영희 한양대 석좌교수) △'한국정치체제의 변동과 안철수 현상 : 87년체제론의 관점에서' (김종엽 한신대 교수)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 : 안철수 지지집단 분석' (최종숙 충북대 강사)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학계, 정계, 언론계 인사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남국(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재홍(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장덕진(서울대 사회학과), 표학길(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백기철 한겨레 논설위원, 천정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18대 대선 이후 민주당의 현주소와 안철수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인다.

최장집 :

"기존 정당, 기존 언론은 서민 소외층 목소리 대변 못해 한국민주주의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

조경태 :

"좌우 이념보다 생활과 골목에서 지역민 밀착, 서민중심 아젠다를 개발하고 실천"

안철수 의원 측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최장집 이사장은 미리 배포한 축사에서 "빈부격차가 증대하면서 부와 소득의 분배구조는 양극화되기에 이르렀으며, 노동시장구조는 정규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었고, 고용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광범하게 노동문제가 제기되었다"면서 "또한 교육은 과거와는 달리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이 사회적 상향이동을 할 수 있

는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 되다시피 되었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기존의 정당, 기존의 언론은 이들 서민으로 통칭되는 소외세력들의 소리를 대표하지도, 대변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나, 자기소리를 갖지못하는 집단으로 소외되어있다. 그들은 그들의 권익을 표로서 조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정당, 어떤 정권으로부터도 대표되지 못했다.”면서 “민주주의가 자율적 결사체, 정당, 또는 선거와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 사회의 다원적 요구들을 표출하고, 이들 각기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를 조직해서 그들의 삶의 질과 기회를 향상시키는 정치체제로서 기능할수 있다는 믿음과는 달리, 한국민주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최 이사장의 발언은 최근 그가 안철수 의원 측 싱크탱크에 영입된 후 안철수 신당이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이라는 입장을 밝힌 배경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후보 때 국정자문위원으로 참여한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장집 이사장의 발언은 ‘안철수 현상’을 편향된 진보의 시각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 패널인 표 명예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안철수 지지집단은 진보와 보수적 성향을 모두 공유한다”면서 “ ‘노동중심적 신당론’은 안철수 현상의 핵심주체인 ‘개혁적인 중산층’과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진보층이지만 대북정책과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층에 가까운 중도개혁계층’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현상’을 ‘노동중심 진보적 신당론’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안철수 현상’의 핵심적 주체인 ‘개혁지향적 중도세력’의 결집을 와해시키고 대부분의 중도진보 세력을 지지계층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의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축사에서 “좌우로 나누는 이념보다, 생활과, 골목에서, 지역민과 밀착하면서 서민중심의 아젠다를 개발하고 실천

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밝히고 "온갖 색깔론과 지역감정의 극복을 민생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한상진 :

"진보와 보수라는 통념을 따르면 안철수 현상의 진면목을 간과하는 잘못 범할 수도"

김재홍 :

"민주당 지지층과 안철수 현상 분석하려면 구시대적 진보-보수 떠나 '복잡성 과학이론' 등 새 패러다임 응용해야"

세미나의 기조발제에서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의 관계에는 가능성과 위험이 같이 존재한다"고 전제, "제도 정치권에 대한 높은 불만을 제외하면 안철수 지지집단의 가치지향이 문재인 투표자의 그것과 구별되는 지점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 민주당이 명실상부하게 환골탈태하면 상당수가 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 명예교수는 "안철수 현상의 핵심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크고 그럼에도 정치에서 탈출하지 않고 새로운 정치를 갈망한다는 데 있다"면서 "이것이 한국정치와 민주주의를 끌고 가는 귀중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과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유권자 층이 형성되어 안철수 현상을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대안 갈구가 안철수 현상의 추동력인가?"라고 문제제기 하면서 "전자라면 진정 다각적 분석이 요구되고 새로운 정당의 사회적 기반도 단단할 것이다. 후자라면 민주당이 환골탈태하는 정도에 따라, 또 안철수 정치인 개인의 부침에 따라, 가변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안철수 지지집단은 경제분야에서는 진보를 지향하고 안보분야에서는 보수를 선호한다는 관찰이 있다. 이것이 과연 사실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진보와 보수라는 통념을 따르면서 안철수 현상의 진면목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의 대선평가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한 명예교수는 “중민 이론이 제안했던 것처럼 외압내진 → 제도진입 → 사회민주화 과정의 결실처럼 보였던 486 정치인이 기대와는 달리 손쉽게 제도정치에 포섭되어 원래의 꿈을 상실한 채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민주당 비판에 이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충격을 느꼈다.”고 밝히고 “80년대 세대를 대변해야 할 위치에 있는 486 정치인은 불행히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2013년 오늘의 상황에서 보자면 80년대 세대도 486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많이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민 사회이론연구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국민의식조사의 자료분석을 통해 “486 정치인의 긍정적 이미지가 2005-2013년 사이에 얼마나 형편없이 추락했고 부정적 이미지는 얼마나 현저히 증가했는가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 명예교수는 486 정치의 실패 요인과 관련, “막스 베버는 이념의 제도화에는 항상 권력이 개입한다는 지배사회학의 관점에 따라 이념과 권력의 접합 양상과 그 결과를 주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제시하고, 이어 “하버마스는 소통이론을 통하여 사회변동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이행의 보폭과 속도를 정해주는 힘, 즉 새 시대를 여는 결정인자 (pace-maker)는 낡은 인습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범, 사회행동에 각인된 새로운 윤리와 도덕이라고 설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486 정치인은 이 점에서 역사를 보는 인식이 부족했고 새 시대를 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평가하고 “단순한 대결의 논리, 수의 계산, 동원의 효과, 함성의 크기에 집착하면서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공존관계’로 특징되는 낡은 정치의 틀에 안주한 셈이 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 명예교수는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력한 경고음을 내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못했던 점은 중민 이론의 치명적 한계이자 낙관론적 전망의 과오였다”고 통렬하게 자기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현상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통념에 따른 평가와 관련, 이날 종합토론의 사회자인 김재홍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에 제출한 토론문을 통해 “안철수 현상을 진보와 보수의 혼재라거나, 또는 정책들을 사안별로 진

보노선과 보수노선으로 분리 평가하는 것은 구시대적 단순 이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면서 "복잡다단화 해 가는 현대사회의 난제들을 구시대 이념인 진보나 보수, 또는 중도노선에 바탕한 정책으로 해결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의 이념 논쟁과 정강정책, 그리고 안철수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진보-보수 논쟁에서 벗어나 복잡성 과학이론(complexity science)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 응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면서 "특히 2000년대 들어 복잡성 과학이론은 자기조직화(selg-organization), 복잡적응시스템(complex adaptive system), 창발(emergence) 개념을 중심으로 구시대적인 이념 패러다임과 차별되는 사고로서 새로운 정책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 개인은 별개라는 시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철수 현상은 정당의 사회적 지지기반과 유사하지만 그것을 안철수 후보가 모두 흡수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의 확장성을 갖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종엽 :
"안철수 대선후보 사퇴 후 행보로 패배에 공동책임"
"안 후보, 자발적 지지 활발했음에도 대중운동 이해 부족"

한편 김종엽 한신대 교수는 "안철수는 기업적 신화에 힘입고 있다는 점에서 정주영, 이명박, 문국현의 계보에 속한다" 면서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안철수는 이들과 다른 독특성을 지닌다. 우선 그의 지도자로의 부상은 그 자신의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업적과 문화 활동(청춘 콘서트), 대담한 기부,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 양보 같은 사건 등에 힘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언론과 여론조사에 크게 빚지고 있다는 점이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그는 정당 부재를 보충할 추종자들의 대중운동을 이끌지 않았다. 안 후보를 향한 분산된 대중의 지지는 실체가 뚜렷했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설수록 안정성을 획득해갔다. 실제로 자발적인 지지 선언과 조직화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나 그의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

들은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지 않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안 후보나 캠프 참여자 다수는 대중운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철수 전 후보가 신당을 만든다면 국민들에게 야권분열로 비춰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이 야권 지지자 가운데 32.7%인데 반해 괜찮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37.9%로 팽팽한 견해 대립이 나타난다"고 소개하고 "이런 설문조사 결과는 안 후보가 취할 수 있는 행보에 대해 야권 지지자들의 생각이 복잡함을 짐작케 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가 행한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인용했다.

김 교수는 또 같은 자료를 분석, "특히 '대선 후보 사퇴 후 안철수 전 후보가 외부와 접촉을 끊고 2주간 잠적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투표자 가운데 70.8%가 공감할 수 없다, 안철수 지지자들조차 60.1%가 같은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런 판단과 같은 선상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54.7%가 '문재인 후보의 대선 패배에 관하여 안철수 후보도 공동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고 평가했다.

심영희:
"1980년대 세대, 2002년 대선과 달리 민주당 지지 철회"
" 약자 돕는 일 적극 관심, 중민 가치관 아직 살아 있다"

심영희 한양대 법대 석좌교수는 1980년대 세대(1960년대 출생, 80년대에 대학생활, 40대 중반-50대 중반의 나이)가 2002년 대선 때는 60.1%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나 18대 대선에서는 43.8%만이 문재인 후보에 투표하여 16.3%가 민주당을 버렸다고 밝혔다. 2002년 이들은 26.6% 만이 이회창 후보를 선택했으나 2012년에는 49.3%가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다. 민주당 대선패배 원인으로 50대 연령층 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민주당 이반이 주목을 끌었으나 민주화 운동의 체험으로 등장한 분명한 성격의 80년대 세대가 민주당을 등졌다는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민주당에게는 뼈아픈 대목이다.

아울러 심교수는 80년대 세대는 같은 시대의 경험을 나눈 486 정치인의 개혁성을 신뢰하지 않고 이들이 자신을 대변한다고 보지도 않지만, 80년대 세

대 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긍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약자 돕는 일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486 정치인이 상실한 80년대 중민세대의 가치관을 이들이 실천에 옮기고 있으며 강한 개혁성향을 유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최종숙:
"안철수 지지자는 새로운 복합적 유권자 층"
"안철수 좌파" 와 "안철수 우파" 의 정밀 분석 필요"

안철수 현상을 집중 분석한 충북대 강사 최종숙 박사는 안철수 지지집단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지지하면서 신중한 대북정책과 물질적 성공을 지향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진보-보수라는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복합적 유권자 층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투표한 '안철수 우파'와 '문재인 후보에 투표한 '안철수 좌파' 사이에는 지역, 이념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나 또한 공유하는 지점도 많다. 따라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심층 분석해서 안철수 현상의 복합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크다.

김남국 :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 도와준다는 발언 공감 안돼"
"민주당, 새 싱크탱크 책임자 영입으로 혁신 주목 끌어야"

종합토론에서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를 대표하지 못하는 기존의 정치엘리트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안철수가 담고 있다면 안철수의 등장은 환영할 일이다"면서 "민주당 대표가 말한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격이라는 발언에 공감하기 힘들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시민들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고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 그들만의 권력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조직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시민에게 다가가고 포퓰리즘을 갖고 있는 안철수가 조직으로 다가가는 것이 지금의 모범답안일 것"이라고 제시하고 "다만, 조직에 시민을 더하는 민주당의 과제는 앞으로 더 나은 결

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에 조직을 더하는 것은 모든 카리스마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화 되고 조직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에서 더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에 대해 "안철수가 정책네트워크 내일을 조직하고 최장집, 장하성을 영입하는 것이 주목받는다"면서 "이러한 결정들은 민주당이 민주정책연구원을 통해서 해야 할 일, 즉 연구원의 원장을 삼고초려를 통해 시민의 주목을 끌고 정책으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백기철 :

" '안철수 실망' 은 콘텐츠 빈약, 정치행보 미숙, 반정치의 추상적 슬로건이 주범"

천정배 :

"민주당, 10월 재보선 결과가 대선패배 능가하는 타격될 수도, 국민감동 조치 필수"

언론계의 백기철 한겨레 논설위원은 종합토론을 통해 "대선 기간 안철수에 기대를 걸었던 오피니언리더들 중 상당수는 그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 정수 축소 문제 등에서 드러난 빈약한 콘텐츠, 대선 레이스 하차 이후 보인 정치적 퍼포먼스의 미숙함, 노원병 출마 이후에도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반정치의 추상적 슬로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이 그 이유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백 위원은 이어 "보수- 진보라는 기존 프레임으로 포착할 수 없는 새로운 유권자층이 안철수 지지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제, "안철수 신당이 정치지형에서 아직도 유의미한 이유는 대선을 거치며 한풀 꺽이긴 했지만 아직도 정치의 새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낸 천정배 전 국회의원은 향후의 정치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안철수

세력과도 힘겨운 경쟁이 불가피할 듯하다"면서 "그 결과에 따라 대선 패배를 능가하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천 전 의원은 "민주당은 쇄신을 해야 하지만 모두 시간이 필요한 일로 10월 재보선 이전에 정국을 반전시킬 만한 효과가 나기 어려울 듯 하다"며 "당장, 또는 단기간 안에 국민을 감동시킬 '획기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10월 재보선에서 성과를 내고 '자기쇄신'이라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다면 민주당은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전 의원은 이어 "'안철수 현상'의 수혜자가 궁극적으로도 안철수 의원일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다"면서 "벼랑 끝에 선 민주당이 '하기에 따라서는'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80년대 세대의

다음은 이날 발표되는 4개 논문의 요약문 :

〈 한상진 교수의 기조발제 〉
"중민 이론의 자기반성: 중도개혁 노선의 재정립과 민생정치의 과제"

한상진 교수의 발제는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첫째는 그가 1980년대의 전환기에 주창했던 중민 이론의 한계를 스스로 비판하는 것이다. 둘째는 중도개혁 노선을 중도-진보 양 날개 노선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셋째는 개혁의 목표를 민생정치의 패러다임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향하여 그는 우선 중민 이론의 형성과정을 간략히 되돌아본다. 1980년대의 현실에서 중민은 정치적 권위주의에 반대하여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약자 (민중 또는 서민)의 편에 서서 정의와 공평이 실현되어 한다고 생각하는 깨어 있는 중산층을 가리킨다. 중민은 생활수준은 중간에 있으면서 민중의 정체성을 획득한 집단, 〈중산층이자 민중〉 또는 〈민중의 합리적 중심〉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가 거둔 경제적 성공의 불가피한 결과로 근대적 중산층과 숙련 노동자 층이 대거 형성되어 권위주의 압제에 대항했다. 경제적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역설이 민주주의를 이끈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중민은 이런 역사적 변동의 산물이다.

한 교수는 중민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한 두 번의 집합 경험을 소개한다. 하나는 1987년 6월의 민주화 운동이다. 도시의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 화이트칼라가 대거 민주화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논쟁 중이었던 중민의 성격을 분명히 입증한 셈이 되었다. 다른 하나는 2002년 〈노사모〉의 출현과 효과이다. 80년대의 경험으로 사회에 진출한 중민 세대가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될 것인가 아니면 세대의 독특한 정체성으로 정치사회변동을 이끌 것인가? 이런 논쟁의 와중에서 〈노사모〉의 출현은 중민 현상의 지속성과 영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여기까지는 중민 이론이 성공한 측면에 가깝다. 그러나 한교수의 발제는 이것이 실패한 어두운 측면을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민 이론에 핵심적인 것은 80년대 세대이다. 심영희 교수의 논문이 보여주듯이, 여기에는 아직 긍정적 요소, 희망의 근거가 많이 살아 있다. 그러나 80년대 세대를 대변해야 할 위치에 있는 486 정치인은 불행히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2013년 오늘의 상황에서 보자면 80년대 세대도 486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많이 상실했다. 한 교수는 자료분석을 통하여 486 정치인의 긍정적 이미지가 2005-2013년 사이에 얼마나 형편없이 추락했고 부정적 이미지는 얼마나 현저히 증가했는가를 보여준다.

한 교수 논의의 핵심은 경험적 자료분석에서 출발하여 이런 참담한 실패의 원인을 중민 이론 안에서 찾는 것이다. 그는 최근 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의 일을 하면서 뼈아픈 체험을 했다. 중민 이론이 제안했던 것처럼 외압내진 → 제도진입 → 사회민주화 과정의 결실처럼 보였던 486 정치인이 기대와는 달리 손쉽게 제도정치에 포섭되어 원래의 꿈을 상실한 채 기득권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교수의 민주당 비판에 이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충격을 느꼈다. 이런 배경에서 한 교수는 486 정치인의 참담한 실패의 원인을 중민 이론의 책임에서 보고 왜 이런 위험을 미리 경고하면서 막고자 노력하지 못했던가를 질책하는 기조발제를 했다.

한교수의 이론적 진단은 막스 베버와 위르겐 하버마스에로 돌아간다. 486 정치인 (혹은 이른바 혁신을 주장하는 외부 수혈 집단)의 한계는 이념과 권력을 혼동한 것, 즉 이념의 권력도구화에 있다는 것이다. 베버는 이념의 제도화에는 항상 권력이 개입한다는 지배사회학의 관점에 따라 이념과 권력의 접합양상과 그 결과를 주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버마스는 소통이론을 통하여 사회변동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지만 이행의 보폭과 속도를 정해주는 힘, 즉 새 시대를 여는 결정인자 (pace-maker)는 낡은 인습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범, 사회행동에 각인된 새로운 윤리와 도덕이라고 설파했다.

두 석학의 혜안은 만고불변의 진실이다. 486 정치인은 이 점에서 역사를 보는 인식이 부족했고 새 시대를 열 준비가 안 되었다. 단순한 대결의 논리, 수의 계산, 동원의 효과, 함성의 크기에 집착하면서 정치적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공존관계'로 특징되는 낡은 정치의 틀에 안주한 셈이 되었다. 기득권을 버리기보다 이를 향유하는 위치로 이동했다. 한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486 정치인의 한계를 비판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런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력한 경고음을 내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못했던 점을 중민 이론의 치명적 한계이자 낙관론적 전망의 과오로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어 한 교수는 중민 이론이 주창했던 중도개혁의 방법론을 중도-진보 양 날개 노선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 노선은 진보의 구상을 철저하게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동시에 중도의 포용성이 진보에 미치는 함의를 적극 고려하는 특징을 갖는다. 2013년 자료분석에 의하면, 한국 유권자의 42.8%는 중도-진보 양 날개의 노선을 지지한다. 진보를 배제한 순수 중도노선의 지지자는 28.6%이고, 중도를 배제한 순수 진보노선의 지지자는 6.4%에 불과하다. 22.2%는 탈 이념의 성향을 보인다. 한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중도노선의 강력한 기반은 대구/경북(41.7%)이고 중도-진보 양 날개 노선의 지지기반은 광주/호남(56.8%)과 부산/울산/경남(50.8)이다.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하여 보자면, 중도-진보 양 날개 노선을 지지하는 집단이 가장 강력한 변화를 요구한다. 다른 어느 정체성 집단보다 이들이 대선패배의 원인

들을 가장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며 현재 당이 처한 불확실성에 가장 크게 염려하면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한 교수는 변동의 가장 큰 에너지가 이 정체성에서 일관되게 나온다는 점을 자료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중도-진보의 양 날개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민생정치〉의 패러다임이다. 민생정치는 4차원의 정책들로 구성된다. 첫째는 오래된 국가중심 또는 정부중심의 가치관을 떠나 개인의 권리와 행복을 우선시하는 정책들이며, 둘째는 시장중심의 경쟁논리에 함락되지 않고 사회적 공존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복지 및 교육 정책들이다. 셋째는 한반도/동북아의 평화를 존중하는 기조 위에서 대북정책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조절하는 새로운 평화/안보 정책들이고 넷째는 시민의 참여와 투입요소를 최대한 신장하면서 제도정치의 호응성과 책임성을 높여 그 상호작용으로 개혁의 결실을 거두는 새로운 협치 모델이다.

한 교수는 민생정치의 과제를 18대 대선의 정치지형에 연결시켜 어떤 유권자가 민생정치를 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지지하는가를 분석하였다. 한교수의 결론은 박근혜 투표자와 문재인 투표자는 단순히 정당 선호가 달랐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평화/안보 축에는 다소 조심할 부분이 있다. 문재인 투표자는 민생정치에 매우 우호적인 반면, 박근혜 투표자는 민생정치 반대 축(정부중심 또는 시장중심의 축)에 상대적으로 많다. 이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민생정책에 과감히 승부수를 던졌으면 좋았을 것임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후보가 여기에 승부수를 던졌다. 역설이자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평화/안보의 축에서는 그림이 달았다. 한반도 평화의 차원에서는 문재인 투표자의 성향이 뚜렷했고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국민 가치관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사되어 있다. 숙고를 요하는 중요한 문제점이 여기서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중민 현상과 안철수 현상 사이에는 중복되는 지점이 다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투표자와 안철수 지지집단 사이의 가치관 차이는 특정 부문에서는 분명히 들어나나 민생정치의 주요 패러다임 안에서는 생각만큼 뚜렷하지 않다. 과연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유권자 층이 형성되어 안철수 현상을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과 대안 갈구가 안철수 현상의 추동력인가? 전자라면 진정 다각적 분석이 요구되고 새로운 정당의 사회적 기반도 단단할 것이다. 후자라면 민주당이 환골탈태하는 정도에 따라, 또 안철수 정치인 개인의 부침에 따라, 가변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80년대 세대의 현주소와 민주당의 과제

(심영희 한양대 석좌교수)

심영희 교수 (한양대)의 논문은 87항쟁 이후 20여년이 지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중민” 또는 “80년대 세대”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 첫째, 18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는 과연 등을 돌렸는가? 둘째, 80년대 세대의 경제사정, 대북정책, 후보와 정책, 민주당에 대한 인식 등 그들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셋째, 그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밑바닥에 변치 않는 “중민”의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이다. 이에 대해 〈2013 국민의식조사〉 자료와 〈2013 중민의식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1 “80년대 세대의 반란”인가?

첫째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18대 대선의 세대별 투표, 역대 대선의 연령별 투표, 18대 대선의 지지이유를 통한 표의 성격을 통해 80년대 세대의 투표를 알아보려 한다. 18대 대선에서는 80년대 세대의 투표가 박/문후보에게 거의 반반으로 갈라져 성격이 뚜렷하지 않았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02, 2007, 2012년 대선에서 80년대 세대의 투표를 추적해보았다. 그 결과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가 민주당 계열후보에게 투표한 비율을 〈2013 중민의식조사〉로 살펴보면 김대중 대 이회창이 출마한 1997년 대선에서 47.3%, 노무현과 이회창이 출마한 2002년 대선에서 60.1%, 정동영과 이명박이 출마한 2007년 대선에서 20.2%, 문재인과 박근혜가 출마한 2012년 대선에서 43.8%로 나타났다. 상대당인 새누리당 계열 후보의 지지율은 1997년 36.0%, 2002년 26.6%, 2007년 47.3%, 2012년 49.3%로서 새누리당 계열 후보의 지지율은 2012년의 경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계열의 4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43.8%는 2002년의 60.1%에 비교한다면 많이 떨어진 수치이고 이렇게 보면 80년대 세대가 야권에 등을 돌렸다고 할 수 있다.

〈표 3-3〉 역대 대선에서 80년대 세대가 투표한 후보 및 지지율
(2013 중민의식조사 자료)

	민주당 계열후보	새누리당 계열후보	기타 후보	투표 안 했음	합계
1997(김대중 대 이회창)	47.3	36.0	9.9	6.9	100.0 (200)
2002(노무현 대 이회창)	60.1	26.6	6.4	6.9	100.0 (200)
2007(정동영 대 이명박)	20.2	47.3	18.2	14.3	100.0 (200)
2012(문재인 대 박근혜)	43.8	49.3	2.0	4.9	100.0 (200)

다음으로 역대 대선의 연령별 투표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보았으나 50대의 경우에는 박 후보쪽으로의 이동이 분명히 보이나 40대의 경우에는 40대 전후반이 다르고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엇갈려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셋째로, 표의 성격을 보기 위해 지지이유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으나 80년대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소극적 지지를 보이는 경향이 보이는 것외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의 탈인습적이고 진보적인 80년대 세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80년대 세대의 현주소:
열악한 경제사정과 불안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선호

둘째, 경제사정, 대북정책, 후보의 수행능력과 정책, 민주당에 대한 인식과 평가라는 4가지 잇슈를 중심으로 80년대 세대의 현주소를 알아보았다. 우선, 경제사정과 관련해서는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와 거의 비슷하게 나빠진 상태에 있으나, 전망에 있어서는 기성세대와 디지털/90년대 세대의 중간쯤의 긍정적인 전망을 하며, 불안의 면에 있어서는 기성세대와 90년대 세대 디지털세대의 중간쯤으로서 90년대 세대 디지털세대보다는 좀 나은 위치에 있지만 후자에 더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 북한 체제비판과 관련해서는 거의 기성세대와 비슷할 정도로 비판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90년대 세대와 함께 평화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주당 문 후보의 수행능력과 관련해서는 기성세대에 가깝게 비교적 인색한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성세대와 90년대/디지털 세대의 중간의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에 있어서는 기성세대보다도 더 낮은 평가를 하여, 네 세대집단 중 가장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네 세대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이념도 그다지 진보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80년대 세대의 현주소는 이전의 탈인습적이고 진보적인 모습에서 많은 풍화 작용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특징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첫째,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북비판지수라는 환경속에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한반도 평화지수를 유지하는 점이고, 둘째, 민주당 후보의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가 인색한 편이고,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네 세대집단 중 가장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80년대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환경속에서 어느 정도 풍화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 또한 약간씩 보여주는 것 같다.

**참고자료:
한반도 평화 프레임에 관하여 국가안보 대 교류협력, 한미동맹 중심 대 동북아 평화를 활용하여 “평화선호 지수’를 만들어 세대별 분포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평화지수의 두 설문을 중심으로 보면, 대북안보 중심과 교류협력 중심의 가치지향이 팽팽히 맞서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 중심과 동북아 평화중심의 축에서는 후자에 보다 많은 지지가 따른다.

응답결과를 세대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80년대 세대와 90년대 세대의 평화선호지수가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온다. 두 개의 설문 별로 80년대 세대의 평화지수는 100점 만점의 평균치가 각각 58.4점과 63.4점이고 90년대 세대의 그것은 56.8점과 63.6점이다. 이 수치는 기성세대와 디지털세대의 평균적 평화지수보다 현저히 높다.

〈표 4-3〉 평화지수 설문에 대한 응답(세대별) (100점 만점) 2013 국민의식조사

평화지수 설문 (문 84)	기성 세대	80년대 세대	90년대 세대	디지털 세대	전체	F-test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	42.8	58.4	56.8	48.3	49.9	15.676***
동북아 평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	50.6	63.4	63.6	57.0	57.4	15.836***

*p<0.05, **p<0.01, ***p<0.001

3. 민주당에 대한 가혹한 평가: 기대가 커서 실망도 컸던 것일까?

**민주당에 대한 느낌을 세대별로 나누어보면 8가지 항목 모두에서 80년대 세대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항목 중 2항목이 30점대이고 나머지 6항목이 20점대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항목은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로서 22.3점에 불과하다. 다음이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 로서 26.4점으로 나타났고 최고점수를 받은 항목은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로서 각각 33.5점과 33.3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때 2002년에 민주당 대선후보에 60.1%라는 높은 지지를 보였던 80년대 세대가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 않은 것은 후보의 수행능력에 대한 낮은 평가와 함께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지 않았고, 지지를 하는 경우에도 소극적 지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의 철회와 관련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표 4-7〉 민주당에 대한 느낌(세대별)

민주당은(문 31)	기성 세대	80년 중민세대	90년 중민세대	디지털 세대	전체	F-test
1.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다	32.1	29.3	36.2	39.9	34.9	9.154***
2.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이다	29.2	27.4	33.5	36.9	32.1	8.515***
3.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이다	30.4	27.9	40.4	39.7	35.0	16.190**
4. 나와 같은 사람의 의견을 잘 대변한다	30.0	29.1	38.0	39.4	34.4	11.918***
5.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	22.4	22.3	25.6	26.0	33.2	11.794***
6.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잘 반영한다	33.2	33.3	40.1	41.2	37.1	7.588***
7.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	27.3	26.4	29.5	33.6	29.5	5.171**
8.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다	34.5	33.5	39.3	41.6	37.5	6.101***

*p<0.05, **p<0.01, ***p<0.001

4. “중민”의 가치지향은 아직도 살아있는가?

셋째, 이와 관련하여 80년대 세대의 밑바닥에 변치 않고 남아 있는 가치지향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교를 위해 한편으로는 80년대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가치지향 평가를 비교하고 다른 편으로는 2005년 자료와 2013년 자료를 비교하였다. 12가지 항목의 가치지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통해 살펴본 결과 80년대 세대의 자기평가는 디지털 세대의 자기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2005년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약자를 돕는 일”에 찬성하고 적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이것은 80년대 세대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기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80년대 세대의 잠재력은 소진되지 않고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약자를 돕는 일”에 찬성하고 적극적인 80년대 세대

** 이제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과 관련해서 중민세대의 핵심가치인 “약자를 돕는 일”에 대한 의견과 실천을 물어봄으로써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약자를 돕는 일과 관련하여 물은 질문은 두 가지로서 다음과 같다. 1)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도

있지만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에 비해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 성공한 것임으로 약자를 돕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시간이나 능력, 자원을 활용하여 약자를 돕는 일에 어느 정도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의 질문에 각각 "매우 반대한다"부터 "매우 찬성한다"까지, 그리고 "매우 소극적이다"부터 "매우 적극적이다"까지 0점에서 10점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5-4와 같다.

〈표 5-4〉 약자를 돕는 일에 대한 의견과 적극성

내 용	디지털 세대	중민 세대	전체	F-test
문 16. 약자 나눔 찬성도	66.0	73.5	69.5	16.04***
문 17. 약자 나눔 적극성	47.4	53.3	50.1	9.35**

*p<0.05, **p<0.01, ***p<0.001

표 5-4에서 보듯이 두 문항 모두에 있어서 80년대 세대가 디지털 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약자를 돕는 일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디지털 세대가 66.0점, 80년대 세대 73.5점으로서 80년대 세대가 더 높다. 약자를 돕는 일에 어느 정도 적극적인가에 대해서는 디지털 세대 47.4점, 80년대 세대 53.3점으로서 이 역시 80년대 세대가 높다. 이렇게 볼 때, 87항쟁 이후 26년이 지난 2013년의 상황에서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한 80년대 세대의 가치지향은 소진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민주당은 따라서 80년대 세대의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시 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80년대 세대의 현주소와 민주당의 과제

따라서 민주당이 80년대 세대에 여전히 관심이 있고 이들을 끌어당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80년대 세대의 이런 현주소를 고려하여 이 세대를 끌어당기는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사정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한반도 평화지수와 대북한비판지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행능력이 뛰어난 후보와 훌륭한 주장과 공약을 만들어 내는 정책, 당의 이미지를 쇄신하여 더 많은 사람을 민주당으로 끌어당기는 정책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은 80년대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많은 세대를 위한 정책이 될 것이다.

한국정치체제의 변동과 안철수 현상: 87년체제론의 관점에서

(김 종 엽)

김종엽(한신대) 교수의 논문 87년체제론의 관점에서 한국정치체제의 변동을 고찰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현상을 조명한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형성된 우리 사회는 두 가지 점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했다. 하나는 분단체제를 탈안정화하는 방향이다. 분단체제를 남북한의 적대적 상호의존의 재생산체제로 파악할 때, 분단체제의 동요는 비적대적 상호의존과 상호의존 없는 적대라는 두가지 이탈의 방향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향 사이에서 진자운동을 거듭한다. 그리고 이런 동요는 분단에 내포된 갈등을 남한 사회 내부에 재진입시킨다.

다른 하나는 권위주의적 발전주의로 특징지어지는 박정희체제로부터의 이탈이다. 이 이탈의 움직임은 민주파와 보수파 각각이 민주화와 자유화(신자유주의화)를 통해서 수행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프로젝트는 모두 권위주의적 국가로부터의 해방운동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체제의 또다른 축인 발전주의는 여전히 하나의 사회적 협약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저성장으로 인해 발전주의적 협약이 깨지고 있다. 이런 발전주의의 위기는 사회 내부의 분배갈등과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발전주의에 대한 집착과 복지담론 및 경제 민주화라는 두 가지 방향의 움직임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위기에 대해 87년 민주화 이후 수립된 정치체제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강한 대통령과 허약한 의회를 유발하는 87년정치체제 그리고 지역적 균열에 기생하는 동시에 그것을 재생산하는 정당체제는 87년체제의 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균열과 갈등을 대의할 능력을 보이지 못했으며, 앞서 언급한 핵심적 위기에 대해서도 해결능력을 보이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의 정당체제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 진보정당운동, 그리고 카리스마적 지도자 운동이라는 세가지 경향이 발생했다. 이런 경향이 MB정부를 경유하며 시민정치(대중행동과 광범위한 인지적 동원, 일관성 있고 전략적인 투표행위의 결합)의 활성화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시민정치에 뒷받침된 탈피운동 가운데 시민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은 지난 총선을 경유하며 유효성이 크게 떨어졌다. 그에 따라 대선을 중심으로 시민정치의 에너지가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 운동으로 응집되었다. 하지만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견인했다기보다는 시민정치에 유발된 안철수 현상은 체제 전환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데 이르지 못했다. 그 결과 정당체제는 위기를 봉합하고 기본형태를 재생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철수 현상을 유발한 사회적 위기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당체제의 위기는 단지 유예된 것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 안철수 지지집단 분석

(최 종 숙)

본 연구는 안철수 지지집단을 분석함으로써 안철수현상을 '복합적 유권자층'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유권자층의 등장으로 파악한다. '복합적 유권자층'이란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을 동시에 갖는 유권자집단을 말한다.

물론 안철수를 '남자박근혜'로 규정했던 장덕진처럼 안철수 지지층을 단순히 보수적 유권자로 규정하거나 반대로 일관된 진보적 유권자층으로 파악하는 논의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안철수 지지집단은 진보적 성향인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성향인 '신중한' 대북정책과 물질적 성공 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복합적' 성향을 갖는다.

진보-보수라는 이념적 스펙트럼으로만 볼 때 이들은 매우 '이질적' 집단인 것이 사실이다. 실제 안철수 지지집단은 안철수가 사퇴한 이후 문재인뿐만 아니라 상당 비율이 박근혜에게도 투표함으로써 '안철수좌파'와 '안철수우파'의 이질적 동거로 보이는 면이 있다. 안철수를 함께 지지했던 이들은 안철수가 사퇴한 이후 세대, 이념, 지역 등 기존 정치균열에 따라 투표하였다.
그러나 '안철수좌파'와 '안철수우파'는 이념, 지역 등에서는 서로 '이질적'이지만 진보적 성향인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보수적 성향인 물질적 성공과 '신중한' 대북정책 지향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질적' 집단이기도 하다.

이처럼 안철수 지지집단이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동시에'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 안철수 지지집단이 완전히 보수적이지 않으며 진보주의자들이 볼 때에도 안철수 지지집단이 완전히 진보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보수-진보'라는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새로운 '복합적' 유권자층의 등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사실 안철수 그 스스로 자신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며 '상식파'에 가깝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것이 안철수 지지집단에 투영되고 있는 셈이다.